

젖소를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일

- 보다 좋은 젖소를 구입하려면 -

홍 보 실

1. 젖소구입에 앞서 알아 두어야 할 일

젖소를 구입함에 있어 그 구입대상에 따라 다르며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마련이므로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소를 고른다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다. 뿐만 아니라 낙농경영에는 각자의 입지조건이 있는 것으로 가령조사료 생산기반이 충분하고 또 생산비가 싼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과는 사료의 급여량 등을 고려하여 젖소의 크기(체중) 등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구입대상이 송아지, 육성우, 초임우 또는 초산우 등으로 달라지는 경우 각기 그 고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한 선정상의 기준과(예로서 젖소심사기준) 이상형 젖소의 그림(본회보지 1984. 6~12월표지 그림)등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구입할 소를 골라야 한다.

무엇보다 젖소를 팔고자하는 목장의 진실성을 탐지해야 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소들의 혈통과(현재 많이 등록되어 있음. 한국축육개량협회에 혈통등록된 소), 능력검정을(지금은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던 산유능력검정 사업이 지역낙협이나 축협에 이관되어 있음) 받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서 구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며 또 이들 농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소 구입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이는 사고자하는 소의 부모의 능력과 또 그 소



의 생년월일 및 조상관계 등 혈통을 알기 때문에 떠돌이 소와는 일차적으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송아지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만후 초유의 급여인데 이와 같은 등록농가 이든가 검정을 받고 있는 농가들에서 구입하면 초유의 급여문제도 일단 안심이 되기 때문이므로 인근에서 신용있고 확실하게 목장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에 부탁해 두는 것이 초보자로서는 실수 없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2. 좋은 젖소란?

우리는 흔히들 이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일은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과 경험이 합쳐 성공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젖소에 있어서도 역시 좋은 젖소는 이론적인 근거를 기초로 하여 그위에 좋고 나쁨을 알아내는 안목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첫째로 좋은 소란 먹은 사료를 젖으로 바꾸는 능률이 높은 소를 말한다. 이와 같은 소는 경제적인 젖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젖이 많이나는 것이 바람직함은 말할 나위 없으나 먹는 사료를

생각지 않고 젖만 많이 난다고하여 경영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양의 젖을 낼 때 사료를 적게먹는 소가 능률이 좋은 소이다. 소를 고를때 젖이 많이나느냐 적게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나 체중당 유량, 급여한 사료의 단위 양분당 유량 즉 사료효율을 생각해야 한다. 알기쉽게 말하면 조사료를 먹는 양이 같고 농후사료를 먹는 양에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양의 젖을 낸다면 농후사료를 적게 먹는 소가 유리하며 조사료를 많이 먹고 농후사료를 적게 먹는 소일때 조사료와 농후사료 값을 비교하여 째사료로 젖을 많이내는 소가 능률이 좋은 소이다. 또 체중당 유량의 비교는 통상적으로 체중이 클수록 먹는 사료량도 많고 젖도 많이 나나 같은 체중에서 젖을 많이내는 소가 좋은 소이다.

가령 체중 550kg의 소를 놓고 생각해 볼 때 4,000kg의 젖을 짤 때 체중능률지수 (산유량을 체중으로 나누었을 때의 수치)는 7.3이고 4,500kg의 유량인 때는 체중능률지수가 8.2이므로 이와 같은 소들은 능률이 좋은 소라고 할 수 없다. 6,500kg의 젖을 짤 때는 11.8, 7,000kg인 때는 12.7, 7,500kg의 유량을 내는 소인 때에는 13.6으로 이와 같은 소들은 능률이 좋은 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를 외견상으로 판별하는 요령은 후술하겠거니와 초보자나 기성낙농가를 막론하고 인근낙농가 중에서 마리수에 비하여 남유량이 많은 농가나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젖소 산유능력검정농가를 찾아가서 기록을 보든가, 검정성적에서 유사비 항목 등을 참작하여그들소의 자손을 사전에 부탁하여 구입하는 방법도 좋은 소를 구입하는 수단이라 하겠다. 모든 일은 자기 노력이 남보다 앞서지 않고서는 남보다 좋은 소를 구입할 수도, 살수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로 번식능력이 높은 소를 말한다. 이는 젖소만이 아니고 젖떡이 동물에 있어서는 새끼를 낳지 않고서는 젖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새끼를 자주 일정간격으로 낳아 출수록 경영자는 생산축이 생기고 젖이 생산되어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자기 종족을 생산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종족의 확산에 승리자이고 젖소에 있어서도 수입원인 젖생산량의 증가는 물론 생산축의 증가로 그만큼 낙농경영에 유리하다.

생후 14~16개월쯤, 체중기준으로 350kg 체중이면 첫종부를 시키게 되므로 첫종부 시기의 개월수가 많든가 체중이 미달된 소는 발육중 어딘가 성장과정의 결함이나 사양관리면에서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므로 초임단계에 있는 소를 고를 때 참고할 사항이다.

번식률에 있어서 분만간격이 제일 바람직한 것은 1년에 한마리씩 새끼를 낳는 것이며 이는 가능한 일이다. 소도 사람과 비슷하여 재태일수가 280일이고 분만후 2~3개월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한마리씩 새끼를 얻을 수 있고 또 젖을 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13개월에 한마리씩 새끼를 얻는다고 할 때 14개월령에서 첫종부 즉 수태를 시키면 24개월령에서 첫분만을 보게되고 2 산은 37개월령, 3 산은 50개월령, 4 산은 63개월령, 5 산은 76개월령, 6 산은 89개월령이 되니 소의 나이로 따져 7 세 5개월이 되는데 이 번식간격이 14개월이나 15개월로 된다고 할 때 대충 따져서 소일생동안 새끼 한마리와 300일간의 젖 생산량을 손해보게 되는 계산이니 번식률이 좋고 나뭇을 낙농가로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아무리 젖이 많이 나고 번식률이 좋다고 하여도 강건하고 지구력이 있는 소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온순해야 한다. 우리나라 젖소 품종은 모두가 홀스타인종이므로 홀스타인 종으로서의 특징을 갖추고 있고 강건성과 지구력에 못지 않게 온순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낙농도 2,000년대의 개인소득 5,000불을 내다볼 때 지금의 5~6두 낙농이나 10두미만의 낙농으로서서는 타산업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맞는 두수의 증가 즉 경영규모의 확대(적정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자연히 사육하는 젖소두수가 늘어야 되므로 우군전체가 온순한 소로 구성해야 관리면에서 그만큼 수월하고 또 온순한 소는 신경질적인 소에 비해 통상적으로 젖생산이 많다고 한다.

온순하다는 것은 소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고 낙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눈이 움푹 패이

고 작은 소는 신경질적인 소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젖소의 제일성(齊一性)이다. 자기가 기르는 소의 크기나 산유량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하며 또 이와 같은 소들을 구입하던가 자체로 개량하여 나가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앞으로 소규모든 대규모든 기계화가 불가피하므로 체형상으로 고를때 우사의 시설 그리고 유방의 크기, 유두의 크기, 굵기 등은 기계착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를 선택할 때 자기 경영과 결부시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의 강건성과 지구력 그리고 연산성(年産性)이 낙농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외국의 예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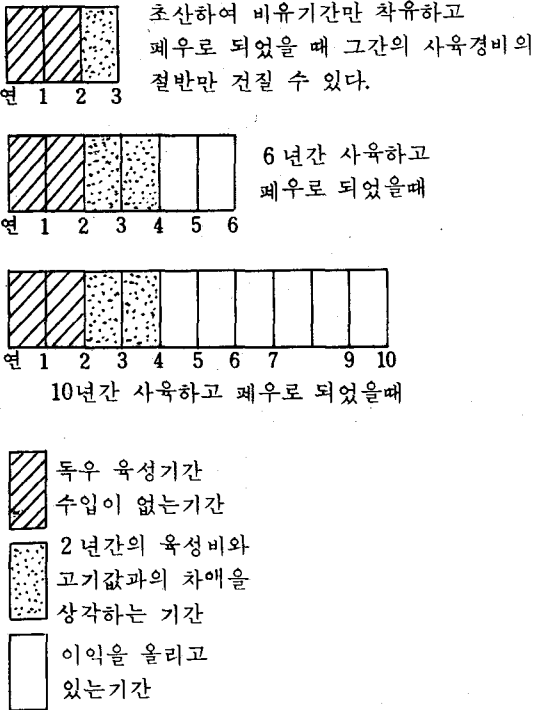


그림 1. 젖소의 수명과 연산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3. 구매할 소 선정의 요점

앞에서도 말한바 있으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젖소에서 송아지든 육성우든 혹은 초임우든 경산우든 할것 없이 유용특질(乳用特質)이 외모

에 잘 나타나 있고 다리가 강건하고 등과 허리가 곧고 어깨붙임이 견실하여 지구력을 갖춘 개체를 골라서 사는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송아지 구입시는 아직 성장단계에 놓여 있으므로 성우로 되었을 때 기대되는 바를 예측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 많은 낙농가들이 송아지 때 좋다고 자가후보측으로 확보해 두었다가 성장해감에 따라 기대에 어긋난 경험을 갖고 있으리라고 본다.

초보자나 경험자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를 바라면서, 필자가 일본 북해도에 있는 유명한 우쓰노미야 목장을 방문했을때 우쓰노미야옹은 70년 낙농에 자기에게 정말 이 소가 젖소이구나 하고 느낀 것은 두세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며 좋은 소 만들기나 고르기는 낙농중의 낙농이라고 하였다.

첫째로, 발육이 좋아야 한다. 발육이 좋다는 것은 그 소의 나이에 따라 알맞는 성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몸 전체가 늘씬늘씬해 보이고 몸부위별 비례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고기소처럼 둥글둥글 하고 부위별로 몽땅 몽땅하게 생긴 감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젖소이기 때문에 젖을 내는 그릇인 유기(乳器)가 좋아야 한다. 일생 동안 젖을 내는 곳이고 젖이 찾을때는 늘어지지 말아야하므로 유방이 붙은 면적이 넓고 만져보아 육질이 아니고 선질로서 유연하고 유두부착 간격이 방형이고 육성우는 유두가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끝쪽이 다소 안쪽을 향해 있는것이 좋다.

셋째로, 유용특질이 좋아야 한다. 젖소는 젖을내야 하기 때문에 젖을내는 특질이 나타나야 하는데 생리적 내부적인 면을 겉으로 알아낼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특질이 외부에 나타나 있는 데가 있으니 그점을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몸 전체의 생김새가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혹은 앞에서 뒤로 내다보거나 뒤에서 앞으로 내다 보더라도 모두가 썩기꼴로 생겨 있어야 하고 얼굴에서 품위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육성우나 만삭우에서는 살이 좀찌어있는 것은 무방하나 착유중인 소가 살이 찌 있든가 송아지가 야위어 있거나 항문위가 더럽혀져있으면 좋은 소나 송아지가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